

7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무기력 장세...4주째 하락	무기력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음.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36.65포인트(0.45%) 떨어진 8,146.52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 역시 3.55포인트(0.40%) 내린 879.13으로 장을 마쳤음. 반면 나스닥 지수는 3.48포인트(0.20%) 올라선 1,756.03을 기록했다음.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부담을 주면서 장초반 주요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 했음. 미시간대학과 로이터가 발표한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64.6을 기록해 전달의 70.8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되었음. 6월 수입 물가가 유가 강세 영향으로 예상보다 큰 3.2% 상승했고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치(2.0%)보다 크게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음. 반면 긍정적인 소식도 없지 않았음. 상무부는 이날 5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260억 달러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음.
유가 60불 붕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이 붕괴되며 지난 1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음.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52센트(0.9%) 내린 59.89달러로 마감했고 마감가격 기준 종가 기준 5월18일 이후 최저가임.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로 이번주 들어 10.3% 급락했고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낙폭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올해 하루 원유 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2.9%(250만배럴) 감소한 8,380만배럴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고 IEA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의 수요 증가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원유 수요는 감소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음.
도요타, GM합작 공장 폐쇄 검토	도요타는 "GM 없이 누미 공장과의 계약을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 사업 여건 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합작 공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누미 공장은 지난 1984년 GM과 도요타의 합작 설립 이후 대부분 금전적 손실을 입혀왔음. 이에 따라 GM은 지난 달 폰티악 바이브를 생산하던 누미 공장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도요타 역시 GM의 결정으로 어렵고 복잡한 결정에 직면했다고 토로했었음. 현재 도요타는 지난 해 58년만에 첫 연간손실을 기록했고, 북미 지역의 과잉생산성과 판매 감소로 고초를 겪고 있다.

제목	주요 내용
中 수출 8개월 연속 감소	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6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4%와 13.2% 줄었다고 보도. 수출 감소율은 로이터의 전문가 예상치(20.9%)를 소폭 넘어섰고, 수입 감소율은 예상치(20.0%)보다 양호했음. 다만 전월 대비로 수출은 7.5% 증가했다고 신화 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총 무역 흑자는 수입이 예상 밖의 개선 추이를 나타내면서 81억5,000만달러로 지난 5월(134억달러)에서 크게 줄었고, 전문가 예상치(152억달러)도 밀돌았음.
李대통령 "韓·EU FTA 합의 도달, 종결 선언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EU FTA가 합의점을 도달하게 됐다"며 "오늘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녹음한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유럽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이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은 이태리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무역, 기후변화, 식량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있었지만, 유럽 여러 정상들과 만나서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음.
녹십자, 유방암 개량신약 `아브락산` 8월 출시	녹십자(006280)는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이상재 교수를 비롯한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유방암 치료제 `아브락산`의 런칭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음. 녹십자는 `아브락산`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출시, 향후 블록버스터급 거대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 또한, 향후 간암유전자치료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NK세포치료제 등의 항암제 출시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